

해양문화연구 제4호 1998년 12월

동아시아에서의 개항의 문명사적 의미

《黃飛鴻》과 《鴉片戰爭》을 통해 본 중국의 근대와 개항

김 태 만*

〈目 次〉

1. 중국의 근대
2. 홍콩의 할양, 그리고 廣州, 福州, 廈門, 寧波, 上海의 開港
3. 빗장이 풀리다 - 《아편전쟁》에서 《황페이홍》까지
4. 西學東漸
5. 끝나지 않은 근대화 - 東南沿海에서 西北內陸으로

1. 중국의 근대

秦漢이래 중국은 주로 육지로 서방과 접촉해왔고, 해양을 통한 서방과의 교류는 그 긴 역사에 비해 그리 빈번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晚淸에 이르러 南洋으로부터의 해상 교류는 전통적인 중국 문화를 전복시키면서 거대한 충격으로 전파되어 왔다. 특히 그 대부분의 교류라는 것이 호혜평등한 교류이기 보다는 무력을 동원한 침략이었다. 이로 인한 문화적 변화는 실로 심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전임강사

교류방식의 변화는 중국이 지닌 주·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거나, 그러한 의미에서 서방과의 접촉 통로가 육로에서 해로로 전환된 것은 바로 중국이 근대로 진입하는 결정적인 단서임을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봉건시대 중국의 대외 문화교류의 문화적 함의를 확인시켜주는 한 예로 敦煌文化를 들 수 있다. 둔황은 봉건시대, 특히 唐 이전까지의 중국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담지하고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둔황문화의 구성성분은 儒·道·佛을 중심으로 하는 漢文化, 둔황과 西域지역 민족이 교류 작용하면서 만든 혼합문화, 그리고 인도·중앙아시아·서아시아 등 외래 이질문화가 현지 민족문화와 결합해 만든 接種문화 등이 혼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대 이전까지의 중국 전통문화는 매우 넓은 포용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宋元대를 거치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봉건성이 요구되어지면서 중국 전통문화는 결국 보수화하고 말았다. 봉건국가적 본질은 晚淸까지 이어졌고, 중국은 여전히 세계사의 격변을 외면한 채 自高自大하면서 쇠국¹⁾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이러한 즈음, 그러나 서방은 강력한 군사력과 우월한 경제력을 앞세워 굳게 閉關鎖國하고 있던 중국의 빗장을 열어 찢히고 말았다. 서방의 외교관·상인·선교사 및 탐험가들이 물밀듯 밀고 들어왔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은 아마도 자연경제하의 민족수공업자들이었을 것이며, 국가 전체의 정치적 독립도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다.

1) 여기에는 민족성이 지니는 기질적 특성 차이도 존재한다. 즉, 中原으로부터 漢族을 몰아내고 들어 온 침략자인 滿洲族이 세운 淸왕조는 건국에서부터 줄곧 한족의 반격이나 외세의 침입에 대해 민감히 반응해왔다. 때문에 이들은 洋人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쇠국으로 일관했다. 즉, 포용력에 기초한 대외개방이 아니라 자급지식에 기인한 자폐증이 이들이 지닌 특징 중 하나였다. 이 점이 중원의 原主人을 자처하는 한족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다.

이러한 內憂外患²⁾의 상황아래 중국의 전통문화는 서방 자본주의 논리의 강력한 충격 아래 그 정체성을 상실해 갈 수밖에 없었다.

전통사회에 있어서 중국의 대외 문화교류의 양태가 <포용>에서 <수구>로 변화하게 된 이면에는 고려해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다. 우선 唐代는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래 문화가 들어오면 전통문화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래문화가 오히려 전통문화에 동화되어 버렸다. 즉, 당 이전의 중국은 이질문화를 흡수하는 강력한 포용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국세가 빈사지경에 이른 만청시기에 이르러서는, 외세 자체만 하더라도 대단한 위협이자 두려움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만청시기에 이르러 외래문화는 중국 전통문화를 공격해 들어오는 침략자였고 반면 중국은 눈을 뜬채 당할 수밖에 없는 수난자였다. 이러한 中西 문화충돌 과정을 통해 중국적 특성을 고구해 볼 수 있다.

첫째, 스스로 최고라고 여기던 중국인들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확인하고 일차적으로 실망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오히려

2) 근대 중국은 안으로 정치적 소요와 밖으로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략으로 하루도 안정한 날이 없었다. 국외적으로는 1840년 아편전쟁을 기화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러시아, 미국, 일본 등과의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다. 국내적으로는 洪秀全에 의해 반청, 기독교정신, 평등사상을 모토로 1851-1866까지 지속된 <太平天國의 난>을 정벌해야 했다. 이를 위해 西太后의 비호를 받는 曾國藩, 李鴻章 등이 이 <태평천국의 난>의 평정을 빌미로 <洋務運動>을 전개했다. <器>만을 중시하는 한계를 지닌 양무파의 운동은 1894년 淸日戰爭에서의 참패로 완전한 실패임이 확인됐다. 光緒帝의 지지 아래 康有爲, 梁啓超 등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器>에서 출발 중국 전통의 봉건적 시스템 자체의 변혁을 주장하는 <變法維新運動>을 전개한다. 이들의 운동 역시 保皇派, 집권파, 보수파, 유신파 등 각양각색의 정파들에 의해 자행된 권력투쟁 과정에서 변법유신 역시 실패로 돌아갔다. 이런 어수선한 정국과정에서 反淸復明의 가치를 내걸면서 <義和團>사건이 벌어지지만 이들은 오히려 <태평천국의 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저급한 농민운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마침내 1911년 孫文이 辛亥革命을 성사시켰으나 얼마가지 않아 권력이 袁世凱의 손에 들어가 버림으로써 진정한 혁명의 의미는 상실되고 만다. 1919년 5월 4일, <五四新文化運動>의 발발에 이르러 중국은 진정한 정치적 사상적 변혁의 시작을 알릴 수 있었다. 이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근현대 역사는 실로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다.

외래문화에 대한 강렬한 반발심이 발동하면서 애국주의가 탄생했다. 그러나 이 애국주의는 민족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 탄생한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행동양식에는 두 가지 뚜렷한 경향을 지닌다. 하나는 외세의 배격이고, 다른 하나는 외세의 학습이다. 즉, <國粹>파와 <西學>파로 대별되는 것으로써 즉, <洋務運動>이 그것이다.

둘째, 지식인들이 전통학문의 범주를 뛰어넘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고 나섰다. 變法自強運動(1898)이 그 한 예이다.

셋째, 일정한 문화수준을 지니며 비교적 개명하고 민감한 지식인일 경우 서양인을 <野蠻視>하던 전통사회의 시각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서방 자본주의의 장점을 신속히 학습해 들여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학습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 결과 그들 중 일부는 서양을 이해하면 할수록 중국도 어쩔 수 없는 세계사의 한 일원일 뿐임을 터득하게 되면서 장차 서방의 지배질서에 통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중국에 있어서 근대문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특히 <開港>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黃飛鴻》(徐克, 1992년)과 《鴉片戰爭》(謝晉, 1997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두 편 역시 상업성을 위해 제작된 영화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작화 소재가 역사사실에 입각해 있고,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감지하게 하는 충분한 자료와 정보가 담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알수 있는 당시 개항장의 분위기를 통해 개항의 문명사적 의미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2. 홍콩의 할양,

그리고 廣州, 福州, 廈門, 寧波, 上海의 開港

아시아 제국의 근대화과정이 대부분 그러하듯 중국 역시 서구 열강에 의해 강제된 근대화과정을 겪어야 했다. 여기에 5천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인류역사의 한 축을 담당해 오던 중국의 뼈저린 비애가 서려 있다. 중국의 근대는 전쟁의 포화로부터 시작 됐다. 근대 100여 년 동안 중국에서 발생한 전쟁은 무려 10여 차례³⁾에 이른다. 홍콩 역시 전쟁의 결과로 영국에 강제 할양되는 비운을 맞아야 했던 곳이다. 홍콩은 다도해 중앙의 내해를 끼고 해안선이 잘 발달해 있는 천혜의 항구로서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 이래로 중국의 관문 노릇을 맡아왔었다. 일찍 산업혁명을 거쳐 신대륙을 찾아 나선 서구인들 눈에 홍콩은 대륙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더 없이 좋은 기항지였다. 이미 15세기부터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지의 상인들이 비단, 도자기, 진주, 은, 차 등을 교역하는 장소로 홍콩을 이용해왔다. 다시 말해 홍콩은 중국의 입장으로는 <근대>의 수입창구로서, 서방의 입장으로는 상품교역의 교두보로서 인식되어 왔다. 그러한 이유로 원래 조그마하던 어촌 홍콩은 세계사적 획을 긋는 영욕의 역사 한가운데서 중국의 운명을 상징하는 결정적 지점이 되고 말았다. 오늘날 홍콩은 이름하여 세계 제2위의 항구이자 제11위에 랭크되는 貿易體이다. 한마디로 무시 못할 경제역량이다. 그래서 세인들이 홍콩을 일컬어 <동방의 진주(東方之珠)>라 찬미하는 것인가.

3) 1839-1842 : 鴉片전쟁. 1857-1860 : 제2차 鴉片전쟁. 1884-1885 : 中佛전쟁. 1894-1895 : 中日전쟁. 1900 : 8國 聯合軍 침공. 1929 : 中蘇동북전쟁. 1931 : 沈陽사변. 1932 : 中日 上海전쟁. 1933 : 中日長城전쟁(盧勾橋사건). 1937-1945 : 中日 전면전쟁 등. 이상은 중국이 외국과 치른 전쟁이다. 그밖에 중국과는 관련 없이 중국경내에서 치러진 전쟁도 두 차례 있었다. 즉, 1904-1905의 日蘇전쟁과 1914년의 日獨전쟁.

그러던 홍콩이 1840년에서 1842년 사이에 치러졌던 영국군과의 전쟁 결과로 맺어진 <南京條約>⁴⁾으로 인해 영국에 할양되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영화 《鴉片戰爭》은 바로 이 사건을 묘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작품이다. 어찌됐건 홍콩은 155년만에 다시 중국으로 반환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운명을 겪어와야 했다.

주지하다시피 아편은 당시 영국 동방무역의 주력 상품이었다. 영국은 아편판매라는 부도덕한 무역으로써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 영국은행의 은 잔고량이 사상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 동안, 중국에서는 위로는 조정으로부터 아래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밥도 안 먹고 피워대는 아편연기로 인해 은을 비롯한 재화가 급속도로 유실되고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한 청왕조 道光(1821-1851)황제는 林則徐를 欽差大臣으로 발탁해 湖廣총독으로 특과한다. 아편의 불법유입을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피해를 가는 국운을 회생시키고자 한 파오광황제의 의지와 린저쉬의 강직한 충성심이 결합된 결정이었다. 淸朝는 5대 康熙(1662-1723)황제, 7대 乾隆(1736-1796)황제 등을 이어 전에 없던 전성기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9대 파오광황제에 이르러 청조의 영화는 급전직하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과도기를 맞이하게 된다. 내적으로 국운이 쇠미해가는 때에 맞춰 동방으로 향한 서구열강의 무력 침탈이 서서히 중국을 엄습해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조정의 뜻과 세계사의 변화를 감지한 린저쉬는 후광총독에 부임하자마자 아편금지에 목숨을 걸었다. 안으로는 관리와 내통하고 밖으로는 양인과 외통하면서 사리사욕에 눈먼 중국무역상들에 대한 린저쉬의 인식과 태도는 여느 총독이나 관리들과 사뭇 다른 것이었다. 당시 무역에 종사하던 지방상인들은

4) 1842년 8월 29일 청정부와 영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여기에서 합의된 7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홍콩할양, 5개 항구 개항, 영국영사관 설치, 배상금 지불, 公行 폐지, 관세협정, 대등관계 확인 등.

지역의 관리들과 돈독한 유대를 맺고 있었다. 다시 말해 지방관리들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상납을 함으로써 지방관리들을 자신들의 후견인으로 삼고 있었다. 또한 지방관리들은 상인들의 청탁에 따라 불법으로 반입해 들어오는 洋人の 아편을 눈감아주었다. 상인과 양인, 그리고 지방관리들 사이에 얽혀있는 끈끈한 유대를 끊지 않고서는 아편밀반입이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었다. 런저쉬는 우선 鴉片館을 강력 단속하면서 폐지해 나갔고, 정도가 심한 아편중독자는 처형했으며, 관리들에 대한 중국무역상들의 뇌물커넥션을 차단하고, 영국인을 비롯한 부도덕한 양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철저한 관리를 실시했다. 그러던 1839년 6월, 양인들이 불법 반입한 아편 20,291상자(약 237만 톤)를 몰수해 바다에 수장해버렸다. 이는 아편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결과적으로 아편전쟁을 유발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말았다. 영국은 자국무역상의 보호차원에서 중국정부에 이의 배상을 요구했고, 그것을 들어주지 않자 그 이듬해인 1940년 6월 마침내 의회에서 출병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선조들의 영광이 자기 대에서부터 몰락의 길로 접어 들어가는 것을 목도해야 했던 파오광황제는 개인적으로 보면 매우 불행한 황제 중의 하나였다. 대내외적으로 청왕조의 권위가 실추하고 있음을 목도하면서 조정의 몰락을 예감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영국군의 위협 아래 반강제로 이루어진 조인이기는 해도 <南京條約>이 체결됨으로써 홍콩섬과 구룡반도가 영국에 할양되어 갔다. 이로써 홍콩에 영국기와 엘리자벳여왕 화상이 처음으로 게양될 수 있었다. 그후, 1898에 다시 <홍콩지역개척조약>을 체결해 <新界>를 포함한 나머지 홍콩 전역을 99년간 임대하기로 조인함으로써 홍콩은 완전히 영국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다. 그밖에도 중국의 5개 항구 즉, 廣州, 福州, 廈門, 寧波, 上海를 개항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당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며 중국의 문밖을 서성이고 있던 南洋의 외세가

공식적으로 중국 본토로 진출하게 되었다. 당시는 외국인의 來華를 매우 엄격히 통제하고 있던 閉關鎖國의 시기였다. 아편전쟁 발발 전부터 중국의 국경을 기웃거리며 국경선을 넘을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서방인사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 그들의 일생일대의 바램이라면 중국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이었다. 고슬리와 광주주재 영국상인 후샤싱은 암스터호라는 배를 타고 甯波口를 통해 2주간 상해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세인을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나중에 《中國文庫報》에 게재한 <上海遊覽記>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상해가 장차 동아시아 최대의 무역항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면서 <개항해 자유무역을 보장한다면 장미빛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이 상해를 위시한 이들 5개항의 개항을 강력히 요구하게 된 이유는 그 지리적 특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항구는 하나같이 중국 동남연해에 반월형으로 분포하고 있는 良港들로서, 밀집된 인구와 풍부한 물자 및 발달된 문화를 지니고 있는 華南·華東지역을 배후지로 두고 있어 중국의 알짜배기 노른자위 지역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홍콩의 할양과 5개 항의 개항은 西學東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중국 근대화의 시발점이다.

한편 《아편전쟁》을 다른 눈으로 보면, 부패와 몰락의 길에 접어들고 있던 중국에 있어서 <아편전쟁>은 <견고한 군함과 정확한 대포>로 상징되는 열강의 무력에 눈뜨는 계기였을 뿐 아니라 서구 문명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의 계기이기도 했다. 린저쉬가 광쑤우에 부임하고 나서 행한 일 중 가장 특이한 것이 있다면 서양서적을 수집번역하고 이를 통해 진지하게 서양을 배우려 했다는 점이다. 청 황제의 흠차대신으로서 거드름을 피우는 대신 그는 서양 것을 배우는데 매우 겸허한 자세를 취했었다. 그것이 서양무기에 대한 공포에서 야기된 <以夷制夷>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는 했어도, 이러한 분위기는 당시 일부 지식인들간에 공유되던 <經世致用>론의

한 실천형태였었다. 그에게서 보여지는 이러한 <서양 바로 알기> 노력은 이후 <洋務運動>의 사상적 근거가 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근대화의 전 과정에 드러나는 하나의 특징을 말해주는 단면임에 분명했다. 그러나, 린저쉬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침략에 극력 항전을 주장하면서 서양을 이해하고 소개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던 당시 지식인들 중 일부의 태도는 린저쉬와 근본적으로 달랐다. 비겁과 가식이 동전의 양면이듯, 맹목적인 서양 배척과 자기비하적 서양숭배 역시 동일한 본질의 두 가지 표현양태일 뿐이다. 영국과의 일전을 목전에 둔 청조대신들의 입장과 태도는 대개 이러한 범주를 넘어서지 않았다. 그 중의 하나가 린저쉬를 파면한 자리에 대신 파견된 琦善이다. 린저쉬가 서양에 대해 주체적인 이해와 학습의 태도를 보인 데 반해, 그는 무시와 배척의 태도로 일관한다. 치산과 같은 관리를 상대하면서 영국이 <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식의 호랑이 역을 맡게 되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홍콩이 영국의 손에 넘겨진 사실 자체가 것처럼 커다란 의미를 갖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홍콩의 영국할양은 이것을 기점으로 이후 서구열강들이 감행한 대대적인 중국분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점에 있다. 즉, 다시 말해 포르투갈, 러시아, 독일, 프랑스 및 미국과 일본까지도 가세한 서구에 의해 자행된 중국침탈의 서막이었다는 점이다. 이를 시작으로 이후 수없이 많은 조약들이 서구 열강들과 불평등하게 체결되어 졌고, 이로써 중국은 점점 더 깊은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또한, 이후 <태평천국의 난>에서 <義和團運動>, <戊戌變法>에서 <辛亥革命>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근대화과정에서 빈곤과 수모를 극복하고 멸시와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 부국강병과 분발항쟁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여기에 중국근대화에 있어서 <아편전쟁>과 <홍콩의 식민지화>가 지니는 중대한 반성적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인 지도 모른다.

3. 빛장이 풀리다

— 《아편전쟁》에서 《황폐이홍》까지

아편전쟁 이후 중서 문화충돌의 양상은 전통 농업·수공업과 근대 과학기술과의 충돌, 봉건 군주독재와 근대 입헌군주제 및 민주정체와의 충돌, 綱常名教와 자유·평등·박애와의 충돌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충돌은 단순히 동방의 정신문명과 서방의 물질문명이 서로 평면적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늙은 동방과 막 태어난 서방이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라는 全部面에서 총체적으로 벌어지는 충돌이요 농업문명과 공업문명 사이에 발생한 인류사적 충돌로 보아야 할 것이다. <五四運動>이 과학과 민주를 제창하면서, 무지몽매와 봉건독재를 반대한 것은 바로 동방과 서방이 정신문명이라는 측면에서 충돌한 대표적 일례라 하겠다. 동서문명의 충돌은 여러 가지 양태의 융합으로 귀결되어 갔는데 그 양상을 영화 《황폐이홍》과 《아편전쟁》을 통해 검토해보자.

1. 《황폐이홍》의 근대와 항구

《황폐이홍》을 볼 때마다 느끼는 사실 한가지는 徐克의 환상적인 장면설정 및 촬영기법도 돋보이지만 李連杰의 무술연기는 정말 신기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점이다. 사실 황폐이홍은 청말에 실존했던 인물로서 탁월한 무예가이면서 동시에 정통한 한의사이다. 영화는 황폐이홍이 廣州에서 개최되는 국제 의학 심포지움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가면서 벌어지는 우여곡절을 그리고 있다. 시대적 배경은 1895년, 그러니까 중국이 甲午戰爭에서 패배한 직후의 상황이다. 바야흐로 일본에의 패전으로 인해 홍콩에 이어 臺灣

마져 일본에 할양당하는 수모 속에 <復清滅洋>을 외치는 白蓮教徒⁵⁾들이 광주를 중심으로 남방일대를 휘젓고 있던 시대이다.

이때는 또 손문이 辛亥革命을 준비하는 초기단계이기도 했다. 민중에서는 청정부의 불평등조약 체결에 대한 대대적인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었고, 이틈을 이용해 백련교도들은 극단적인 斥洋구호로 흑세무민하면서 교세확장을 꾀하고 있었다.

영화 《황폐이홍》은 중국의 근대화운동에 있어서 서방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천착없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 영화의 기본 축 역시 中國과 西方, 中醫와 洋醫,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무술과 근대적 병기를 선명히 대립시킴으로써 中西衝突 양상을 보여주려는데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민족적이고 전통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백련교도가 악의 편에서 있고, 이들과 약속한 바는 없지만 淸官府 역시 근대를 부정하면서 외세를 거부하는 세력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외세인 서방(여기서는 영국인)과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의사를 비롯한 중국의 일부 지식인들은 선의 편에서 구국혁명의 길을 향해 항진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즉, 반민족 혹은 매국적 행위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구국혁명으로 미화되어 있다. 이는 당시 민중의 의식수준에 기인하는 것이다.

우선 《황폐이홍》에 그려지고 있는 계층, 집단 및 각 인물들간의 역학관계 속에서 당시 사회의 극단적 종교민족주의에서 민주혁명파에 이르는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검토해 보자.

白蓮教 教主 — 淸官府의 大人 — 황폐이홍 — 영국(인) — 혁명가 孫文
(復清滅洋) (민주공화주의자타도) (양심적 지식인) (혁명운동지자) (辛亥革命)

5) 元代부터 존재해온 이들은 원래 아마타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서민, 빈농 등의 민간에 파고 든 종교결사체. 청말 嘉慶년간에 대규모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 여파가 청말 민국초에 이르기까지 잠복하고 있었다. 영화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구호가 <反清滅洋>을 기치로 하던 義和團과 다소 유사해 보이나 실은 惑世誣民하는 邪教로 묘사되고 있다.

이 스펙트럼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민중의 西方觀과 진보진영 내의 서방관은 일정한 층차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즉, 한 예로 영화 속의 여성인물로서 황페이홍을 연모하는 昭君은 당시 서양유학파의 전형적 성격⁶⁾을 지니고 있다. 유창한 영어실력, 양손을 사용해 스테이크를 멋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당히 몸에 밴 서양문화, 카메라 촬영기술을 소지하고 있으며 양장 드레스가 몸에 어울리는 여성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문화와는 일정정도 거리를 두는 것을 멋과 <메너>라 여기기도 한다. 이런 여성에 대해 거리의 민중들은 <서양귀신>이라는 욕지거리를 퍼붓는다. 양심적인 전통 지식인으로 여겨지는 황페이홍 역시 처음에는 西方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일반 민중과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제 의학세미나에 중국을 대표해 참석했으나 외국어를 몰라 낭패를 본다. 洋醫적 관점에서 조건반사 신경체계를 설명하는 洋醫師에게 중국의 전통 침술로 조건반사를 마비시킬 수도 있음을 확인시켜주면서 中醫의 우월성에 득의양양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쉬커 감독은 황페이홍이 영어 때문에 위기를 당할 때마다 통역을 등장시킴으로써 전통 의학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서방에 전달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사실을 관객들에게 암시해 준다. 이처럼 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중서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절박성을 부각시키고자 한 감독의 의도를 고려할 때 황페이홍의 태도는 순진하게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황페이홍》에 등장하는 양인, 특히 영국인은 매우 호의적인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다. 이는 개항이후 이미 5-60년이 흐른 시점이니 만큼 그들의 역할 중 긍정적인 부분을 특히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광주의 영국인들이 과연 것처럼 호의적이고

6) <양장한 중국여성>의 모습은 당시 洋務派가 주장한 <中體西用>의 상징적 예가 아닐까. 여기서 황페이홍은 다른 것에는 국수적 태도를 지니면서도 昭君의 복장이나 태도 등에 대해서 만큼은 어떤 불평도 드러내지 않는다.

이타적인 존재였을까에 대해서는 여기서 일단 논외로 하자. 다만, 혁명운동을 위한 연락이나 심지어 자금과 인원 등의 지원에 일조한 것은 사실이며 그런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황페이홍이 淸官府의 大人과 벌이는 마지막 한판 결투는 당시 무너져 가는 부패무능한 청왕조의 말로를 암시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통쾌함을 자아내게 해준다. 이는 어쩌면 중국의 근대화가 보다 철저한 자기부정과 자기모순의 극복을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지도 모른다.

廣州는 근대 중국 개항사의 첫 번째 주역으로서 중국 근대화의 시작이요 동시에 종결점이었다. 즉, 《아편전쟁》에서는 외세의 침략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지만, 《황페이홍》에서는 孫文의 친구이자 후원자인 陸皓東의 피가 스민 靑天白日旗와 함께 혁명이 시작되는 곳이다. 唐家灣으로 향진하는 증기선은 근대 중국의 미래를 싣고 달리는 혁명 바로 그것이지 않을까.

ㄴ. 《아편전쟁》의 서양 읽기

《황페이홍》의 國粹主義(중의가 양의(외과수술)를 극복하는 것이나, 무술이 서양의 병기를 극복하는 것 등)는 서양과의 충돌과 융합 속에서 자연스런 통일점을 찾아 가고 있다. 이와 달리, 《아편전쟁》은 무력을 동원한 격렬한 전쟁을 전제하고 있긴 하나 린저쉬의 진지한 서양 읽기(영어는 물론 식사법, 음식문화, 병기, 과학 등을 진지하게 학습)는 이후 양무파들의 서양학습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화에서 린저쉬와 치싼은 각각 抗戰派와 和約派의 대표인물로 그려진다. 우선 린저쉬가 취한 洋人監禁과 아편몰수 및 廣州의 天字부두에서 200여만 상자에 달하는 몰수아편의 수장장면은 다소 무리인 듯 하지만 보는 이를 통쾌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아편전쟁>이 유발되고 개인적으로는 파직되어 新疆으로 유배

당하게 되긴 했어도 그의 대서방 인식은 남다른 데가 있었다. 그는 지구본 위에 그려진 세계지도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서양의 강함과 중국의 유약함의 본질적 차이와 원인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그러면서 서방세계에 대해 인정할 것을 인정한 뒤 그들의 장점과 강함을 겸허히 배우려 한다. 남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반면, 치싼은 영국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강력한 대포와 날쌔 군함>을 지닌 영국군의 군사력만을 보고 놀란 이후, 무력으로는 불가항력임을 지레 승복하고 무조건 화약을 맺고자 한다. 영국군을 달래고 화약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위안부로 발탁된 容兒이 자신을 농락하려는 영국해군 선장 엘리엇을 가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치싼은 룡얼을 등에 묶어 수장해 버린다. 이 장면에 이르러 마침내 애국과 매국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심각하게 전도되어 버린다. 그는 어떤 원칙이나 논리도 없이 무조건적 和約만을 내세웠다. 마침내, 치싼은 <홍콩은 한갓 쓸모 없는 땅>이라고 따옴팡황제를 설득해 영국에 할양해줄 것을 종용함으로써 영국과의 화약을 성사시킨다.

당시 중국에서 지식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관리들은 서양의 무력에 그저 경탄과 공포를 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이상에서 보듯 린저쉬와 치싼 두 사람의 대서방 태도는 근본적으로 대비된다. 특히 서방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경로가 다르다. 우선 린저쉬는 서방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통역관을 모집해 서양 출판물들을 번역해 진지하게 학습한다. 이는 이후 전개되었을 지도 모를 진정한 항전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반면 치싼은 여전히 중국을 自高自大하면서 꿈을 깨지 못한 채 일언지하에 서방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기분에 영합함으로써 위기를 모면코자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든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음은 명약관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얻은 화약이야말로 가짜 화약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치싼은 알지 못했던 것일까.

이렇게 본다면 결론적으로 린저쉬를 파면하고 치싼을 기용한 따오팡황제의 무능과 무지를 탓할 수밖에 없어진다. 따오팡황제는 영국의 무력 침략을 맞아 과연 나름의 外交觀을 지니고 있었던가? 항전이나 화약이나를 놓고 조정대신들을 불러모아 진행하는 회의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당시의 따오팡은 세계사에 대한 인식이 없었을 뿐더러 내부적 역량의 결집과 배출 방식에 대해서도 견해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여기서 오늘의 중국 현실을 유추해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21세기를 실험하는 오늘의 중국지도자들이 보수와 개방 사이에서 어느 한 가지를 확정짓지 못하는 현실과 어떤 유사성은 없는 것일까?

중국의 19세기는 이렇게 흘러갔다. 중요한 것은 영국과 맞선 전쟁에서 장렬한 전사자들의 목숨 값도 못한 채 패전하고 말았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마치 영화는 중국의 대포가 낡고 힘이 없어서 패전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무기의 탓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중국의 패인은 따오팡황제를 비롯한 조정대신들 및 지도적 지식인들의 근대에 대한 주체적 인식의 결여에서 찾아 져야 한다. 즉, 20세기의 도래를 강제 당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현실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진 감독이 지닌 역사인식의 한계가 노정된다. 팡조우성을 공략한 영국군에 맞서 자폭으로 항거하면서 비장하게 죽어 가는 關장군의 최후를 통해 당시 중국인민들이 얼마나 장렬하게 싸웠는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느끼는 것은 껌테기뿐인 대국의 무력한 백성으로서 갖게 되는 비애감일 뿐.

4. 西學東漸

아편전쟁 이후 중국의 지식인들은 서양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다. 린저쉬와 마찬가지로 魏源은 “적들의

장점을 본받아 배움으로써 적을 제압한다[師夷之長技以制夷]”라고 여기면서 “첫째는 전함이요, 둘째는 총과 대포요, 셋째는 군사훈련술이다[一戰艦, 二火器, 三養兵練兵之法]”라고 주장했다. 즉, <船堅砲利>에 대해 뼈저린 인식을 얻은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기초가 이후 <洋務學堂>, <翻譯館> 등을 세우고 유학생을 파견해 적극적인 서학진작을 가져올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다.

ㄱ. 서양문화의 漸入

서학에 대한 지식인들의 인식변화와 서학동점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즉, 1840-1860년은 중국 지식인의 각성단계⁷⁾, 1860-1890년은 <自強> 실천단계⁸⁾, 1890-1895년은 <自強> 실망단계⁹⁾라 할 수 있다.

서방에 대한 학습열기를 반증이라도 하듯, <中學爲體, 西學爲用>으로 中體西用論을 정리한 洋務派는 1862년부터 北京, 廣州, 上海 등에서 同文館, 廣方言館 등을 개설하고 서양인을 초빙해 외국어를 강의케 했다. 《황폐이홍》에서 昭君이 백련교도들의 만행을 피해 영국영사관으로 피신시킨 어린이들이 바로 이 동문관의 학생들이다. 처음에 동문관은 소수의 귀족자제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다가 1866년부터는 화학, 수학, 만국공법, 의학, 천문, 지리, 물리 등 자연

-
- 7) 林則徐의 《四州志》(1841), 梁廷枏의 《海國四說》(1844), 魏源的《海國圖志》(1844) 등 저작의 출간은 중국 지식인이 서방을 이해하고 학습하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 8) 馮桂芬의 《校邠廬抗議》(1861), 鄭觀應의 《易言》(1880), 王韜의 《設園文錄外編》(1882) 등에서 서방에 대해 비교적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의 서방에 대한 위기감이나 긴박감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이들 저작에는, <富國強兵> <民富國強> 등에 관한 수많은 강령이나 조치들이 제시되었다.
- 9) 馬建忠의 《富民說》(1890), 湯震의 《危言》(1890), 陳睽의 《治平通議》(1892), 鄭觀應의 《盛世危言》(1893), 陳熾의 《庸書》(1893), 夏啓·胡禮垣의 《新政論議》(1894-5) 등은 주로 서방 제도의 우수성을 지적하면서 중국의 제도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과학을 강의함으로써 본격적인 대중교육 기관으로 자리잡아 갔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서방 과학기술의 위력에 대한 충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후, 廣州, 天津, 武漢 등에 水陸師學堂, 武備學堂, 方言商務學堂 등 보다 실무를 겸한 본격적인 과학기술계 학교가 건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1872년부터 공식적으로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했다. 이 같은 근대 서방과학기술의 전파흡수로 인해 동시에 자연스럽게 서방자산계급의 정치사상 및 생활방식이 따라 들어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美國 留學生들의 행위에는 다소간 전통 유가예교윤리에 위배되는 요소가 들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반해 중체서용의 원칙을 고수하려는 양무파는 마침내 1881년, 미국 유학생 파견을 철회하면서 완고파와 동일한 태도를 취하며 학생들을 질책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중체서용론의 근본적인 모순과 한계가 도출된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상이한 <중체>와 <서용>이라는 두 문화체계를 수평적으로 결합시키려는 노력 자체가 허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康有爲와 陳熾의 《萬國公報》, 梁啓草의 《時務報》와 《強學報》, 嚴復 등의 《國聞報》 등 학보가 대량 발행됐던 것도 당시 서학 붐의 결과였다.

㉔. 지식산업의 흥기

당시 지식인이 의도했건 하지 않았건 서학은 점차 물밀 듯이 중국으로 전파되 들어 왔는데 그 교두보는 역시 개항된 항구였다. 홍콩은 이미 중국 속의 서양으로서 각국 선교사들의 집합지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선교사들은 학교를 설립하거나, 성서출판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사실, 제1차 아편전쟁 직후, 來中 서방 선교사들이 창간하거나 설립한 신문, 학교 및 출판기관은 불과 몇 개 소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2차 아편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 서방 열

강들의 이권다툼이 시작된 이래 이들 영역에서의 기득권 다툼은 그들만의 권리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후 30여 년 동안 선교사들에 의해 자행된 소위 <문화침략>은 무려 76 종에 달했다. 1875년 통계에 의하면 교회당 800여 개소에 재학생수는 1-2천명이었던 것이 1899년에 이르러서는 교회당 수 약 2천여 개소에 학생 수는 4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에 의해 번역 출판된 서적은 무려 2천여 종에 이른다.

上海를 예로 들면 남경조약 체결에 따라 1843년 11월 8일 상해에 영국영사관이 설치된 이래, 영국은 점차 광주와 홍콩에 집중돼 있던 활동무대를 상해로 옮겨오기 시작한다. 이로써 상해는 바야흐로 동아시아의 物流와 문화교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이에 힘입어 영국은 홍콩에 주둔하고 있던 함대를 옮겨옴은 물론 영자 및 중국어 신문을 발간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치공세를 펴기도 했다. 예로 《六合叢談》(1857)은 상해에서 발간된 최초의 중국어신문이다. 그 후 1872년에는 중국 최초의 근대적 신문인 《申報》가 창간됐다. 이밖에도 과학, 지리, 정치, 천문, 역법, 의학, 상무, 신문, 종교 등을 다루는 종합 월간잡지 《遐邇貫珍》도 발행¹⁰⁾됐다.

이상의 외국인에 의한 출판사업 외에도 <自強>을 기치로 내건 양무파들의 운동이 전개되면서 출판사업이 대대적인 흥성기를 맞았다. 이들은 외국공업을 수입하고 선박 및 대포를 제조했고, 동시에 교육을 개혁하고 학교를 설립해 洋質와 外事를 담당할 통역사 양성에 힘썼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 출판교육 사업이 흥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10) 《西學東漸與晚清社會》，熊月之 著，上海人民出版社，1994，上海. p143-219의 도표 참조. 갑오전쟁 이후 당시 <同文館>，<江南製造局翻譯局>，<廣學會> 등이 중심이 되어 이 지역에서 번역 출판된 서적은 수백종에 달하는데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全體新論》《算法全書》《植物學》《天文略論》《天文問答》《海國圖志》《地球圖說》《平安通書》《瀛寰志略》《中華帝國對外關係史》 등.

근대 중국의 새로운 형세, 새로운 환경, 새로운 학문은 중국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이것들에 대해 학습하고 연구하도록 자극 흡인했다. 濟世를 목적으로 국제지식, 세계지식, 세계역사, 지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세사조와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자연과학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는 과학사조가 그것이었다. 이러한 연구에 골몰했던 사람 중하나가 바로 린저쉬다. 《아편전쟁》의 린저쉬를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영화에서와 같이 외국의 신문잡지를 통해 세계지리와 외국어를 습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그는 《四州志》 《華事夷言》 《各國律例》 등의 서적을 번역해 출판할 수 있었다. 원래 그는 1839-1841 광주에 흠차대신으로 부임했다가 나중에 兩廣總督을 겸임한 사람이다. 對英戰爭을 치르면서 <知彼知己, 百戰不敗>를 다시 확인하면서 적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두루 인재를 불러들여 국외사정을 잘 연구하고[羅致人才, 研究外情]>, <각지의 인재를 널리 등용해 외국의 사정을 소상히 이해[晉材楚用, 了解外情]>하는 자세로 임하면서 외국어 신문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The Encyclopedia of Geography》를 번역해 《四州志》란 서명으로 출판하고, 《各國律例》, 《華事夷言》 등도 번역 출판하는 번역에 있어서의 개가를 올렸다. 그는 국제화 시대에 부적절한 自高自大의 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 <오랑캐를 스승으로 삼는다 한들 체면을 다치지 않는다> 라는 실용적인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당시 그 어떤 선진지식인들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다.

동시대 嚴復 역시 翻譯史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옌푸는 《진화론》 《群己權界說(自由論)》 《穆勒命學》 《群學肆言》 《原富》 《法意》 《社會通銓》 《名學淺說》 《中國教育議》 등 일인이 감당하기 어려우리 만큼 많은 분량의 번역저작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를 하여 번역에 있어서 만큼은 <믿을 만하고, 사리에 박통하고, 문자가 우아한[信·達·雅]> 번역의 일인자란 칭호를 얻을 수 있었다.

번역을 통해 그는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가 부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5. 끝나지 않은 근대화—東南沿海에서 西北內陸으로

오늘날 중국이 《아편전쟁》에서의 반제국주의 과제와 《황페이홍》에서의 민주해방 과제를 모두 완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중국에 더 이상의 린저쉬와 황페이홍 같은 인물은 필요 없는 것일까? 현재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있어서 <결정적 단계>¹¹⁾에 처해 있다. 때문에 <21세기의 중국>이라는 이 역사적 명제는 더욱 중요하면서도 절박한 것이다.

왜 <결정적 단계>인가? 우선, 21세기를 당면하고 있다. 보다 격렬한 경쟁과 보다 복잡한 국제형세가 예상되는 21세기.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동남연해지역에서 출발해 서북내륙지방으로 파급되는 형상이다. 15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미완의 근대화는 여전히 개항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어떤 자세로 21세기를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21세기에 중국이 과연 선진국 대열에 나란히 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 바로 그 토대를 닦는 결정적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둘째, 鄧小平이 <개혁개방>을 주창한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개혁과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을 무려 20년 가까이 진행해 왔다. 지금은 바야흐로 질적 비약의 결정적 시점이라는 것이다. 질적 비약을 이루어 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중국 사회주의 개혁과 현대화 건설이 일정정도 성공을 거두어 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었거나 누적되어 왔다. 이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하지

11) 《장쩌민과 신중국 건설의 청사진[關鍵時刻]》, 김태만 외역, 동방미디어, 1997년, 서울.

않으면 안될 결정적 시점에 다다랐다. 중국이 만약 이들 문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국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은 아마도 족쇄에 걸리고 말 것이다.

이상에서 영화 《黃飛鴻》과 《鴉片戰爭》을 통해 중국의 <개항>과 <동서충돌>,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진행된 <근대화>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영화에서 보여지는 19세기 중국의 개항이 지니는 문명사적 의미는 21세기로 진입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도 여전히 당시와 동일한 무게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19세기 중국의 근대기획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때문에 鄧小平은 자기 생애의 마지막 과업으로 1992년 <南巡講話>에서 밝힌 것처럼 “동남 연해지역을 우선적으로 개혁개방 함으로써 전체를 발전시키고, 준비되고 능력을 갖춘 계층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부유해짐으로써 장차 전 인민이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先富論>을 유지로 남긴 것이 아닐까. <개혁개방>의 기치아래 세기적 변환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중국이 다시금 동남연해의 <항구>를 발판으로 재도약을 꾀하려는 이유와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21세기를 앞둔 오늘, 19세기의 <개항>과 전혀 질을 달리하는 새로운 의미의 <개항>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

